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나와 불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고단함 속에서도
부처님과 함께 행복

이평래(충남대 철학과 교수 · 한국불교학회장)



일제 말에 태어나서 8·15 해방, 6·25 전쟁 그리고 4·19 혁명을 체험한 세대인 나로서는 실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전쟁 속에서 성장한 나에게는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성난

파도와 같은 격정의 세월로 얼룩져 있는 것 같다. 무척이나 빈곤 국가이던 처지에 전쟁까지 겹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나 뿐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았다.

전쟁이란 그 속성이 잔인할 수밖에 없다. 이기면 흥하고 지면 망하는 흥망성쇠가 손가락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무기가 달 발달할수록 사람의 목숨을 더 많이 빼앗아 가는 것 같다. 무기가 후진 적일수록 사람이 대신 더 싸워야 하는 까닭이다. 어쨌든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뿐 아니라, 가족과 헤어지게 하며, 재산을 갖다미로 만들고, 산하를 황폐하게 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간의 심성을 때마르게 하므로 싫다.

실로 전쟁은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렇게 험난하고 거친 풍상을 겪으면서도 내가 불안·공포·좌절·실망·고독·분노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견디어 온 것은 오로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일찍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는 부처님께 ‘미치고’ 부처님 가르침에 ‘미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에 ‘미쳐서’ 거의 한 평생을 보낸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광명이 모두 땅 속에 묻혀 있지만, 광맥을 찾지 못하면 캐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생도 따져보면 광맥을 찾는 것과 같다. 삶이란 실로 암중모색이다. 그렇게 엮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술한 애환(哀歡)이 내 속에 모두 자리잡고 있다. 그래도 오로지 외길,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고단함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왕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동계스와의린도, 가야·전정각산에서 고행하신 부처님의 고행상을 생각한다면 견디어내지 못할 일도 없으리라.

너무 시야본사 사끼야무니불!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이 설레니다. 길가에 내걸린 연등 물결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불자들이 불교와의 인연담을 말합

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자기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물어볼까요. 부처님오신날에 되돌아보는 불자들의 불교 인연. 그 이야기보따리를 풀어헤칩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빈다

손재현(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 교수)



내가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어법못한 기억으로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밥상에 발을 들였던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생각했던 부처님을 미워하면서 나와 부처님의 인연은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었다.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피나는 노력과

연습 끝에 대학무용과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작고하신 나의 은사 조승미 교수님께서선 선교무용에 한창 열성을 쏟고 계셨다. 불교신자로서 선교무용을 한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을 즈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라. 너의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단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교수님을 도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수님을 도와 더욱 열심히 공연을 했다. 이때부터 조금씩 나도 불교무용을 하며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공헌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불교무용을 하고 있

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

1999년 무용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해외 공연을 갔다. 종교도 다른 나라, 그것도 2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이스라엘의 야외무대에서 한국 불교무용을 선보일 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단원들의 긴장을 풀어 주려고 애썼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대 뒤 의자에 주저앉아 부처님을 찾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외할머니가 나타나 내게 손을 내미셨다. 그 까칠하면서도 따스한 손을 눈물이 쏟아졌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긴다. 보살행을 많이 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원효의 무애사상은
어린 내게 큰 충격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만난 것은 40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효 대사 일대기를 읽으면서였다.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라고 외치신 것도 인상적이

었지만, 그보다 내 마음을 오래 잡았던 것은 무애와 회통의 통쾌한 장면 하나였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깊은 산속에서 귀신과 도깨비가 나타나 회통할 때 원효 스님은 신통을 부러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거나 죽이지 않고 그들 방식대로 꺾꺾거리며 춤을 추면서 함께 한마당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은 어린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 이념적 갈등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시절 우리나라는 서로를 불신하고 선악으로 구분하여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심한 흑백논리가 팽배할 때였는지라 ‘악한 무리들과 함께 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효의 무애사상과 회통의 원리는 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불교로 자연스레 빨려들게 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나를, 우리를, 세계를 돌아보게 하는 용병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생의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아무려면 귀신이나 도깨비보다 더 흉악할까.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고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와 없이는 세계 평화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음을 새삼 절실하게 느낀다.

부처님은 내 인생을 늘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하루하루 내 생활과 세상만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도, 더 깊은 가피도 없다. 또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서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불교가 시대흐름의 중심에 서서 이 사회를 보듬고 이끌어가는 종교로 우뚝 서는 게 내 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인연 따라 삶을 아름답게 회향하고 불교가 한 걸음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

빛을 쬐어 가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

정상옥(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나는 항상 부처님께 감사한다. 일찍 부처님을 알게 되어 불교청년활동을 하며 불법 흥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

성격 급한 나를 유순하게 만들어준 부처님의 가르침도 감사하다. 화가 날 때나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나는 부처님을 생각한다. 세간의 일체를 버린 위대한 출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얼굴엔 미소가, 가슴엔 의지가 절로 솟는다.

불문에 발을 들여놓은 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처님같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웠던 일만 생각하면서, 주변의 후배들에게도 재미있고 즐겁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자고 독려했다.

나도 한때 사업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 그 때는 부처님을 원망도 해보았다. 갈등과 불만을 술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도반들이 있었다.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매일 조계사 법당에서 108배 참회와 기도를 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결정적 어려움을 거래처에서 양보하여 파산은 면했다. 부처님의 가피였다. 오랜 기간 빛을 정리해 가면서도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했다.

청년회 임원을 한지도 20여년이 넘었다. 지금 나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자리까지 하고 있다. 대불청 중앙회장을 하면서 갖게 된 고민은 청년회원의 감소와 노령화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포교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뜻을 같이하는 분회 채수범 중앙이사가 청년지도자 양성 교육에 선포 3000만원을 출연했다. 감사한 일이다. 게다가 학업에 바쁜 전준호 정책기획실장이 지도자 교육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요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청년회에서는 도반들에게, 끝으로 부처님께 감사한다.

‘자유의지’로 내 삶을 영위한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김종관(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총무)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본주의 종교요 나를 중심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다섯 살이었. 이후 유년기 내내 동네 사찰은 아예 나의 집이었다.

불교는 행복 그 자체였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1993년 어느 날 조계사청년회에 입문한 것이 본격적인 신생활의 시작이었다. 그 해 부처님 오신날 하루 전, 조계사 대웅전 철야법회

에서 무진장 스님의 법문은 나를 불제자로 태어나게 했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짐을 믿으라”는 법문을 듣고 불교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 단 순히 삼배만 하던 나를 반성하고, 불교를 제대로 알기로 다짐했다. 법우들과 회보를 만들고, 도반들과 교리 공부를 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답을 찾게 된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의 책임도 내가 지게 된다. 불교는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인생의 지침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인 인과론은 자신을 반추하는 길라잡이였다. 노래에도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창조신이 있어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달리 나

의 ‘자유의지’에 의해 내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교리공부를 통해 법우들과의 우정도 쌓았지만, 위대한 우주적 존재인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나에게 큰 행운이다.

인간의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 ‘선’과 관련한 책을 보다가 ‘인간의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란 부처님의 말씀에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수선회에서 현담스님의 지도로 참선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을 시작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고 수선회 시민선방에서 인거를 지냈지만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불교를 만났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청문마다 푸르른 나무가
보이는 뉴욕의 집들
아침에 창을 열면
센트랄파크에서 불어오는 녹색바람이
몸을 깨우고 마음까지 맑게 합니다
숲과 대화하는 집 -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차라리 내가 지을까?
여자감각아파트
두산 We've
위브